

불교생협

한가위 제수용품 사러 오세요

'순수 국산 유기농산물만 준비돼 있으니 이번 추석 차례용품 믿고 사러 오세요'

각종 농·수산물의 수입 상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꽃게와 같은 값싼 파동의 여파로 순수한 우리 식품만 파는 사찰 직영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찾는 불자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특히 12일 추석을 앞두고 생협들이 과일, 햅쌀, 한과 등 추석 상품들을 제 품 종류별로 가지런히 진열한 특별전을 열고 있어 수요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유기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일반 재배작물보다는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농약과 비료를 거의 쓰지 않아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석왕사등 10여곳 햅쌀 과일 한과 특별전 무공해 유기농산물...주부 발길 부쩍

현재 교계 생활매장은 불교생협 운동본부, 영화사, 봉은사, 능인선원, 수원포교당, 부천 석왕사, 남원 실상사 등 10여곳 정도다.

이중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산하의 불교생협운동본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자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근본 취지를 두고 쌀, 채소, 잡곡, 건강식품, 밀, 건어물 등 다양한 식료품을 저렴한 가격에 불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호응도가 높다. 또 남원 실상사도 사찰 열 귀농학교에서 생산되는 곡류를 비롯해 무, 배추 등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을 맞아 기획상품전을 열고 있는 불교생협운동본부는 차례상에 올릴 약과 한상자에 7천원, 햅쌀 유과 1봉지에 3천5백원, 제주포 1개에 3천5백원 등에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사리, 대추, 햅쌀 등의 제수용품과 매실차, 사과주스, 아카시아꿀 등 국내 주요 산지에서 재배한 다양한 과일 선물세트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1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천 석왕사 생협도 16일까지 '2000 한가위 차례상 모음전'을 마련하고 있다. 인기품목과 가격을 살펴보면 유기농 햅쌀 8kg에 2만9천원, 포도 5kg에 1만9천원, 생포도버섯 250g에 3천3백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외에도 직접 가정에서 빚은 술잎송편이 1kg에 1만7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햅쌀 산지는 150g에 5천4백원, 유과는 160g에 3천5백원에 내놓고 있어 가정에서 만들기 번거로워 걱정하고 있는 주부들의 인기를 말끔히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불교생협운동본부 귀약찬사는



교계 생활매장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생협운동본부에서 12일 추석을 맞아 특별 기획전으로 내놓은 인진숙, 사과, 매실, 생식 상품 세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까다로운 품질 관리와 함께 최소의 택배비용만 받고 불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교계의 생활매장

Table with 2 columns: 사찰(매장명) and 전화번호. Lists various Buddhist temples and their contact numbers.

건강백과

커피와 질병

대한의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평균 352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 하루 1잔 꼴이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신다는 사람도 있다. 커피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커피는 기호식품일 뿐 건강에 지나치지만 않으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정상인의 경우 하루 4잔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위장질환=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켜 기능성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위·십이지장궤양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4.6배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담석증=커피는 담낭 운동을 촉진하고 담낭액의 흡수를 떨어뜨려 담석증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

기억력 높이고 다이어트 효과

위장장애 원인...4잔 이하 적당

▲유방암=커피를 많이 마시면 유방종양(양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으나, 최근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노르웨이에선 마른 여성이 커피를 마시면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골다공증=커피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 골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대퇴부 골절 위험이 2~3배 정도 높다.

▲다이어트=유럽에선 커피 다이어트가 유행이다. 카페인은 이노작용으로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며 기초대사량을 높임으로써 칼로리 소비를 늘려준다. 단 우유나 크림 등을 섞어 마시는 것은 금물. 단백질이 카페인과 결합해 카페인의 흡수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기억력, 추리력 등이 향상된다. 이런 결과는 노인에게 더 두드러진다. 카페인은 자살을 방지하는 항우울효과가 있다.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불면증 환자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차별화된 교육프로 질실"

조계종 어린이집 운영 주지연수



조계종 교육원은 8월 18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 주지연수회'를 열었다. 내원사, 금강사 등 22개의 사찰 유치원 주지들과 9개의 어린이집 대표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에서는 '협체제 조직 및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불교 유아교육과 운영 관리'를 주제로 한 대

봉선사 어린이집 운영

남양주 봉선사가 9월부터 구리시에 있는 인창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다. 이번에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연건평 1백 20여평 규모로 1백여명의 원아를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다. 1일부터 모집하며 9월 중순에 개원할 예정이다. (031)527-5974

전문봉사 동아리 회원 모집

서울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의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전문 봉사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봉사활동의 전문교육을 통해 내실있는 봉사자 확보를 목

청소년 단신

적으로 결정되는 전문 봉사 동아리단은 봉사활동 소식지 발간 작업을 비롯해, 홈페이지 운영, 문화재 지킴이, 관광도우미, 문화봉사, 응급구조 등 6개 분야로 나눠 연중 상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활동한 봉사자들은 '2002 월드컵' 등 크고 작은 국제규모의 행사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02)739-9260

16·17일 백제권 문화답사

조계사 청년회는 16·17일 양일간 선운사와 무량사 등지로 '백제

원스님(동국대 불교대학과 교수)의 강의가 열렸다.

이날 강의에서 대원스님은 "어린이 포교를 체계화 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와 함께 요구되는 차별화·특성화된 유아 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발전적인 어린이집 경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중간 관리자들의 합리적인 활용"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주지스님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직원 및 시설 관리의 어려움과 차별화된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 부족 등을 꼽았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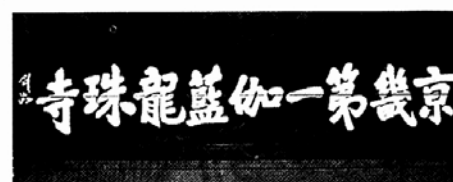
권 문화답사'를 떠난다. 성보문화재 연구소 김현정 강사가 안내를 맡은 이번 문화답사 프로그램에서는 익산 미륵사지를 비롯해, 부여 정림사지, 서산마애삼존불, 수덕사 등을 둘러보며 백제불교의 특징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02)735-3724

서불청 해인사 참전기행

서울불교청년회는 16일부터 1박 2일간 경남 합천 해인사로 정기산행 및 참선 기행을 떠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야산 야간 산행을 비롯해 해인사에서의 새벽예불 및 108배 참회 정진 등 참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02)730-9108

사찰 편역을 찾아서

⑩ 검여의 용주사·해인사 편역



검여 유희강(劍如 柳熙綱·1911~1976)은 현대 한국 서예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서예가로, 인천에서 출생해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고, 후에 명륜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39년 중국에서 사회와 금석학을 연구했으며, 1943년에는 '상해미술연구회'에서 서양화를 배우기도 했다. 1946년 귀국한 검여는 박세림 등과 '대동서예연구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

합천 해인사 <범종루>, <사운당> 편역 등이 전하고 있다. 수원 용주사 사문에 걸려있는 <경기제일가람용주사> 편역은 무너져 있는 좁은 변죽을 덧댄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역관 좌측 위쪽에 '검여(劍如)'라는 관자가 있다. 검여의 초기 글씨는 웅건(雄健)한데 비해 만년의 좌수서(左手書)는 청경(淸勁)하였다. 1946년 귀국한 검여는 박세림 등과 '대동서예연구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

...용주사 단정한 북위 해서 필체

범종루 군세고 단단한 기운 서려

밖에도 그는 인천시립박물관장과 한국서예가협회장 등을 지내기도 하였다.

검여는 각 체의 글씨에 모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전각과 그림에도 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육조체(六朝體)의 행서를 잘 썼다. 송동파의 글을 좋아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1968년 뇌출혈로 인해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게 되자 좌수서(左手書)를 연구하여 또 다른 경지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가 사찰에 남긴 글씨는 많지 않으나 수원 용주사 <용주사>, <경기제일가람용주사>, <범종각>

(結構)가 단정하고 필치가 주경하다.

합천 해인사 <범종루> 편역에는 도서나 관지는 없으나 1968년 검여가 전서로 된 <사운당> 편역과 함께 쓴 글씨이다. 해인사의 종각은 본래 구광루 동쪽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80년대 초에 주지 명진(明振)이 지금의 자리에 종각을 새로 지으면서 편역을 옮겨 건 것으로 보인다. 편역의 글씨는 북위(北魏) 해서의 제법인 혼용(混融)하여 쓴 것으로, 근골(筋骨)이 견강(堅剛)한 서미(書味)의 해서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동산 관세음보살상 봉안식

광동여고에서 열린 동산 관세음보살상 봉안식.

광동여고 자비동산에 관음상

종림학교인 광동여고는 8월26일 교내 자비의 동산에서 '관세음보살상 봉안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스님을 비롯해 의정부 사암연합회 지점스님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일면스님은 "자비동산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봉안으로 아의 법당 역할을 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언제든 마음 편히 와서 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for '사랑과 시' (Love and Poetry) featuring a poem about wind and love, and a list of books for sale.

Advertisement for '행운을 따르는 벽조목' (Wall of Fortune) featuring a poem about a tree and a list of books for sale.

Advertisement for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Meeting of Buddhists, Life in the Dharma, and Marriage Research Institute).

Advertisement for '진아 꽃 피우는 방편의 꽃 우담바라' (True Flower, Flower of Remedies, Udambara) featuring a poem and a list of books for sale.